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경삼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신근

오늘은 장애인주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여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여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오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였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 고전 12:20-27 -



모두가 장애인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장애인이다. 육의 장애보다 더 심각한 장애는 영적인 장애일진데,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형편없이 망가진 영혼을 지닌 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적으로 볼 때에도 모든 인간은 장애인이다. 정신적인 결함에서 오는 열등의식이나 자기학대, 교만과 이기심보다 더 심각한 장애는 없기 때문이다. 그밖에 모든 사람이 조금씩은 보거나 말하거나 노래하거나 운동하는 일에 모종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장애를 신기한 듯 이상하게 보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누구나 불편함은 가지고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편한 부분만을 바라보고 덜 불편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할 때, 장애인들을 치유하시는 역사도 함께 행하셨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보여 주시고, 그 구원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보이시고자 하신 것이다. 따라서 장애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통로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총이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특권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우리에게 하여금 하나님 사랑의 흔적을 맛볼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 따라서 내 곁에 있는 장애인 이웃은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 배움의 기회이다.

사랑부·에바다부 행사

오늘 장애인주일을 맞아 사랑부와 에바다부에서는 본당 앞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몸과 정신이 다소 불편한 그들과 건강할 모든 성도들이 충분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오후 찬양예배 시에는 하나님을 향해 특별찬양을 올려드릴 예정이다. 이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충현복지관에서는

한편, 충현복지관에서는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정신지체인을 사랑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서 이들이 감당할 역할은 정신지체 아동 특수교육 보조, 행정업무 보조, 컴퓨터 워드작업 보조, 성인 정신지체인의 작업 및 학습 보조, 정신지체인과 함께 가는 캠프 참여,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창조적인 진행 등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주 1회, 약 3시간 정도씩 6개월 이상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연락처 565-7564). 성도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

전도훈련원 99-2기 모집

5월 2일까지 신청

지난 3월 3일부터 시작된 전도훈련원

99-1기 과정이 4월 28일자로 마쳐졌다.

전도의 의의 등 5개의 실제적 강의와

3회의 전도실습을 마치고 수료할 1기생

은 3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급변

제1기 과정에 대하여 전도훈련원에서는

전도 현장 실습 등을 통해 큰 배움과 성

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제2기생으로 지원하여 훈련반

아 충현전도대원으로 활동할 성도들은

5월 2일(주일)까지 교육국으로 신청해

야 하며, 훈련은 5월 12일(수)부터 8주

동안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 등에서 진

행될 예정이다.

수리남 선교 현장 방문팀
현지에 무사 도착

안식령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수리남 선교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한 방문팀(이승수 목사, 노광현 장로, 박영석 장로, 김광남 장로)이 16일 정오경(한국시간) 현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수리남에 안 선교사가 파송된 이후 방

문팀이 현장에 파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성도들은 이를 방문팀의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그리고 급변 방문을 통해 수리남 선교의 현황과 가능성 등을 잘 살펴 향후 선교의 방향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고등부
예수사랑 큰잔치
4월 25일 주일에

고등부는 전도교회인 예수사랑 큰잔치를 4월 25일 주일에 실시한다. 500명의 세신자 및 미출석 고등학생들을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고등부의 영적 부흥을 기하고자 하는 이번 행사를 위해 고등부 자녀들을 둔 성도들의 많은 협력과 기도가 요청된다.

교정전도회
창송교도소 전도집회
4월 27일로 변경

지난 주 광교로 교정전도회 창송교도소 전도집회가 4월 20일에서 27일로 한 주 연기되었다.

'99 여름 단기선교
지원자 모집
4월 25일까지 신청 접수
수단별은 이미 마감됨

케냐와 몽골, 파키스탄 선교 사역에 동참할 '99 여름 단기선교에 지원할 젊은이들은 4월 25일(다음주일)까지 선교위원회(선교관 4층)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비치용 성경찬송
반납해 주십시오

처음은 성도들이나 손님들을 위해 본당 로비에 비치해 둔 성경찬송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부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회

25일 학습세례식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4월 18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이종대 목사)	교육관 307호	구원론 (이종대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자 (김희주 목사)	교육관 310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4월 25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본당)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김창인 목사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사야 41:1-7)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이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말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

1.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십니다

(1)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부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1절)
사람이 보기에는 그 나라의 왕이 굉장하여 대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넓고 넓은 바다에 뾰족이 돋아난 작은 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섬들아”는 ‘보잘것없는 인생의 주권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만을 버리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이론을 늘어 놓고 허튼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고 잠잠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저 잘났다고 떠들어도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나팔소리가 들려오면 “언디야, 신아, 나를 가리여라”하다가 기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입을 봉하고 조용해야 하는 보람찬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미리 조심하십시오.

(2)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신 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 민족들이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1절)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이 옳으나 그러기가 싫으면 사람에게 힘을 충동한 하여 하나님께 반역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지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능동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어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동방의 의인인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말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2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물을 명하였느냐 나 어호와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4절) 하나님은 태초에 일을 계획하시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와 만물을 지혜로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동방의 의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합무로 떠드는 교만한 행동을 그만두고 입을 봉하고 잠잠히 순종하십시오.

남 알과 사람 앞에서 흠 잡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열국을 굴복케 할 실력이 있습니다. “...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갈게 그의 칼에 불리는 초개갈게 하매”(2절) 셋째로 언제 어디서든 신배를 모릅니다. “그가 그들을 좇아서 그들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알지못히 지냈나”(3절) 넷째로 하나님과 담이 없습니다.

2. 이방인을 부르신 결과는 더욱 완악하여졌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5-6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전제 만만 했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참 하나님만 믿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참 무섭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했는데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만 못구나” 하면서 자기네 신을 찾아가서 “당신은 왜 하나님만 못하니까?”라고 불평을 하고는 더 좋은 신을 만들어 놓고 더 열렬히 우상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어두워졌다는 탄식입니다. “목공은 금장식을 장려하며 마치고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군을 장려하며 가로되 뿔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혼돈되지 않게 하느니라”(7절)

아람 왕이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여 죽입니다. 바알이라는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람 왕에게 나타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대로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람 왕은 할 수 없어서 자기의 궁내 신 오바다를 데리고 물에 얻으러 나갔습니다. 그 때에 다시 아람에게 나타난 엘리야를 보고는 “이스라엘을 포로롭게 하는 자여”(왕상 18:17)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누가 이스라엘을 포로롭게 하였습니까? 엘리야가 기가 막혀 “내가 이스라엘을 포로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포로케 하였으니 이는 어호와야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섬기는 바알신의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시오. 어느 신이 참 신인가 거꾸러 봅시다”라고 제의했습니다.

다. 이에 아람 왕이 그러자고 하여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의 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았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람이여 머뭇머뭇 하리느냐 어호와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좇으시오라” 백성에게 말하고 “그러면 제단 둘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두 마리를 잡아 각을 떼서 올려 놓고 사람이 불을 놓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제물을 태워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너희의 신은 불의 근원이라는 태양신이냐 너희가 먼저 불을 내려 달라고 빌어서 제물을 태워 보았습니까.” 자기네 신이 태양신인데 불을 내려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려줄 것 같았습니다. 이리하여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이 송아지의 각을 떼서 제단에 올려 놓고 “바알이여, 태양신이여, 태양신이여 불을 내려 응답하소서” 하며 아침부터 낮까지 제단 주위를 돌았습니다. 점심 때가 되었습니다. “니희 신이 어찌하여 아직 불을 내리지 않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신지자로서 답대합니다. 오후 3시 되어서 이제 그만대라.” 그들은 기진 맥진하여 풀려앉았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열두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떼서 장작 위에 놓은 다음에 백성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는 기손잔에 물이랑 기름을 떠다가 이 제물 위에 부어라.” “네 통을 부었습니까.” “네 부어라.” “여덟 통을 부었습니까.” “네 부어라.” “열두 통을 부었습니까.” “네 부어라.” “열두 통을 부었습니까.” 제물이 흠뻑 젖고 제물의 주위에도 물이 출렁출렁 고였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 아람 왕과 아람 왕의 아들이 엘리야를 어호와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라 되시고 내가 주의 종이 되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어호와야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어호와야 하나님이니 그와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들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어호와야 불이 내려서 만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대나무 등 도 땅의 물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이르러 말하기를 “어호와야 그는 하나님입니다.” 어호와 그는 하나님입니다. 바알은 가짜입니다. 이리하여 엘리야는 “백성을 속이고 나라를 망친 저 바알의 신지자들을 모두 잡아라” 명령을 내리고 거짓 신지자들을 기손잔에 끌고 가서 모두 사형집행을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아람 왕에게 “이 악한 자들을 처치했으니 정심을 잡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비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일곱 번 기도하니 비가 쏟아

아칩니다. 이만하면 아람 왕과 이세벨이 회개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밝기 전에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너도 바알 신지자처럼 죽이겠다” 아람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것을 거것말로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돌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면 이것은 더욱 패역하고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욕심을 버리기가 싫어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남녀관계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가 싫어서 회개하지 않고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여 회개하지 못합니다. 셋째로 마음이 강박하여 회개하지 못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자로써 무서운 줄 몰라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잘못이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르고도 실수하는 것이 인생이고, 알고도 약하여 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죄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는 자가 아름다운가? 다른 사람의 책망을 듣기 전에 자신의 양심의 편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귀한 사람입니다. 이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겸손한 사람은 남에게서 교훈과 회개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면을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이 때를 회개하고 회개한 교생은 하지만 그래도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았으면 충성과 매를 맞았으면 회개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알 만한 증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이 된듯 말리듯 더욱 섬기면서 점점 완악해지다가 필경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기쁨을 나누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



하나님의 어린양

(출애굽기 12:8-11)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율월절이니라”

유월절 식사 메시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로웠던
때에 무리서 출애굽하기를 약속을 얻게 된
이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나훔 땅에 내리신 열변의 세를 알고 지나
가는데서 일제하의 그들 사마교 하
가시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것
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께 출
애굽을 위한 여민양을 잡아 어떻게 할 것
인지를 정화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밤에 그 이아기를 붙여 주면 무교병과
은 나뭇과 아울러 먹되(구원) 이 유월절
식사는 내는 열변인 메시자가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분 말씀에
이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 성사로 성취하신 구원의 사건을 이
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보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
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양의 피와 몸

출애굽기 때,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확실한 구분이 있었습니니다. 애굽인의 장자들은 모두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우름을 통해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양의 피와 그에 대한 나만의 확실한 약속을 기렸습니다. 어린양의 피와 관계를 가진 자들마다 안전했는 것입니다. 아낸! 내 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무교병 및 쓴 나물과 아울러 불로 구운 떡을 먹었습니다. 구원의 그 밤에 복받은 택한 백성들은 어린양의 목을 먹었는 것입니다. 물론 물주기도 마른 어린양의 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증분했지만 그들은 인걸이 구운 기름을 마셨습니니다. 그리고 이 구운 어린양 고기가 그들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힘

그날 밤, 애굽 전제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갑자기 당한 재앙으로 인해 कुछ 사람들은 울부짖는 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애굽 군사들은 거리를 누비면서 손칼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천설처럼 어이없는 피를 버리지 않은 집들 위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며 장자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지나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해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힘, 곧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 모두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뿐 아니라,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려 하는 이 여행으로 인해 그들은 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의 필요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얻는 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과 영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을 할 수 있다'(골 4:3). 여기에서 '능
력 주시는 자'가 '내게 능력이 되게 하
는' 이력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영육간의 힘을 얻고 위하여 하
남의 이력양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의 삶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이력증은 예수 그리스도께 귀로 받
아 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생활의 시작에 불과합
니다. 우리에게만 인생의 환관과 시련
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님께로의 떠
노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약속의

노의 불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화상의 고통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가감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결코 그 열기가 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마다 그의 사랑과 힘과 능력을 받게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소멸된 희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양 고기를 구워 먹은 것뿐만 아니라 무교병과 쓴 나물도 먹었습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데 성경에 나오는 '누룩'이란 의미는 부패와 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악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이 무교병 역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양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힘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어려운 인생길을 완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부요한 정복자로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 힘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아무도 천국에까지 도달할 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불에 태워지는 희생

하나님께서는 어린양의 고기와 관련 하여 몇가지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린양의 고기는 꼭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밤, 하나님의 진노는 예루살렘 위에는 그대로 일했지만 이스라엘이 받은 진노는 어린양이 대신 받았습니니다. 이뿐!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양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어린양은 하나님께 내리시는 진노의 뜨거운 불을 우리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니라"(고후 5:21).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

시는 분들에게는
 만히 임할 것입니다.
 성경을 완주하는 데 필요한
 은근원이 되십니다.
 는 부요한 정복자로서
 에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은 영생을 주시는 깨끗하고 순결한 양식입니다. 또한 쓴 나물을 쓰라린 결박을 의미합니다. 이쓰라임 백성들은 쓴 나물을 먹으면서 파고의 죄와 애굽에서의 노예생활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쓴 나물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고난을 상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처참한 죄의 결박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은 남은 의인인 양 기기를 결코 버리지 말

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웃음
 입고 있어야 했으며 심판을 믿고 있
 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
 에는 능한 것 부려 주어야 없습니다. 그
 는 또한 지팡이를 잡아야 했는데 이
 나그네로서의 준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도 이러한 여행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
 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러므로 너희가 모든 것을 족속으로 제
 치를 삼아 아버지께 아들과 성령의 이
 름으로 새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
 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사
 함 있게 되리라 하시니라”(눅 28:18-
 20).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오직 그분
 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경해야 할 나라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어리향

어리만큼 어인양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인양과 관계를 맺는다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핏줄을 통해서 충만한 이함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인생길을 완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부유한 정복자로서 약속의 땅에 이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였습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첫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필요한 영육간의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애굽인들을 더 강한 자들로 보지 모르지만, 영의 눈으로 보자 그들은 이삭이엘을 두우시는 여인양을 받친 자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피

우리 내리는 행뚜기를 보유했을 기능성이 그들은 매우 복한과 대립해 있습니다. 그들은 젊어서 있으며 세를 즐기기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와 같은 내리 버리고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을 생성하여 우리들은 스스로 내리 반해 보입니다. 우리 예속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눈이 하나인데 이영에게로 모자가지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믿는 모든 자를 위해 뿌려졌으며 우리는 그의 십자가 피를 먹고 마시므로 최후의 승리와 영생과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때로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 나설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린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1절). 그들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

선교

고은빈 평신도선교사 인터뷰

맛사이에 물리는
복음의 노래

복음의 쟁기로 기경되어가는 고집쟁이들의 땅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몸을 가리고 밤에는 차가운 공기에 몸을 움추려야 하는 곳, 가난과 문맹의 땅, 용맹스럽긴 하나 강한 민족적 자부심이 미신적 편견과 뒤섞여 좁쌀처럼 변화되지 싫어하는 부족 문화가, 고은빈 평신도선교사는 이 부족 거주지역인 케냐 엘레(Lele)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임시 귀국한 고 평신도선교사와 잠시 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 그동안의 사역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은빈 평신도선교사: 하나님께 저의 미래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겠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어서 1992년 7월 한달간 친구가 사역하고 있는 케냐 맛사이족 부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어릴 때에 선교사로 헌신한 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방문기간 중에 다리에 금 상처 열창이 뜨기위해서 바로 그 다음해인 93년 6월에 케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초기 3년간은 맛사이족 지역에 거주하면서 나이로비에서 언어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할거를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헌신은 했지만 선교사로서 준비되지 않은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했지요.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 많이 가르쳐 주시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일년간은 한국에 나와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에 다시 돌아가서 최근까지 엘레초등학교 사역과 엘레교회 사역, 그리고 교회의 현지 여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맹퇴치 사역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사역은 이 문맹퇴치 사역입니다. 현지인들 중 특히 여성도들은 자기들의 언어인 맛사이어로 된 성경

을 간절히 읽고 싶어하는데, 글을 쓰거나 읽을 줄을 모릅니다. 물론 맛사이어로 번역된 신구약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 배워가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 지금 엘레초등학교 현황은 어떻습니까?

고은빈 평신도선교사: 엘레초등학교는 케냐정부에 등록된 공립학교이고 교사 중에 외국인은 저 혼자입니다. 현직인 선생님은 여덟 분이 계시고 학생은 유치원생까지 120명 정도가 있습니다. 맛사이족은 유목민들이라 건기와 우기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숫자에도 변동이 좀 있습니다.

- 복음에 대한 맛사이족의 반응은 어떤 편입니까?

고은빈 평신도선교사: 맛사이족은 용맹스러운 편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른 문화가 가르침들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벌써 100여년이 되었지만 현재 20만 맛사이족 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0%도 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적이 학년에서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면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 그동안 사역하면서 느낀 보람, 그리고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고은빈 평신도선교사: 사실, 제 자신이 주위 변화에 좀 둔한 편이라서 제 주위 사람들은 종종 "너가 거기에서 버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선교사라고 생각보다는 현지인들의 형제와 이웃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선교사는 늘 무언가를 주는 입장에 서기 마련인데, 헌nen은 한 시간이 넘게 걸어서 교회에 오는 정도가 자기 집에 식사초대를 했을니다. 그래서 피약별

아래 한 시간을 걸어서 그 집에 갔는데, 너무나 열심히 식사준비를 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20여분을 배려다 주면서 제 손에 계란 다섯알을 꼭 쥐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웃이 된 그 느낌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힘든 것은 혼자 있다보니가 가끔씩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이 나옴에 마지막으로 후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제목을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은빈 평신도선교사: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제일 큰 기도제목이구요, 무엇보다도 엘레지역 맛사이 사람들 중 특히 남자와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도 여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편이거든요. 또 엘레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았으니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 나오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네요.

- 대단히 감사합니다.

외·선·부

방글라데시인 라쥬 이야기

4월 12일, 6개월 전에 한국에 두번째 온 라쥬가 임한데 있다기에 병문안을 가보았다. 두 번 교회에 나왔지만 철저한 모슬렘이었던 그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갔다. 일용근로자로 공장에 나가서 일하던 중 지붕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으나 다행히 한 달 정도 입원하고 두 달 정도 쉬면 회복된다고 한다. 다행하게도 사당님은 좋은 분야에서 보편해당도 안되는 병원이와 두 달 월급 및 생활비를 책임져 주시마 했고 매일 두번째 병원에 와 돌아보았다. 같은 병실에 있는 한국인 두 분이 잘 보살피고 주셔서 형편이라고 부른다. 병문안 간 선생님에게 퇴원하면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하는 라쥬! 한국 사람들의 사랑과 교회 선생님의 사랑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라쥬! 그의 가슴에 예수의 사랑이 심어져 고향에 두고 온 그 가족들에게 예수의 계절이 오길 기도드린다. (외선부)

이웃사랑

'더불어 살기' 실천하는 중등3부
결식학생 돕기에 나서

빈은 곳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 속에 있는 곳만을 바라보기가
쉽다. 그러나 그 반대쪽에 조금은 쓸쓸
한 우리의 이웃들이 살고 있는 생각
을 잊어서는 안된다. 소외된 사람들과
다불어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등3부에서는 진도제
회의 일환으로 결식학
생돕기를 실시하기
로 하였다.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
웠다. 먼저 그 대
상으로 교회주변의
연박중, 역삼중, 도곡
중, 연주중, 온평여중과
결식학생을 찾았다. 그리고
중·고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현조를 요청하여 학교측의 추천을 받은
후에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지원방법은 도시락 제공과 급식비 지
원의 두 방법을 두고 논의한 결과 도시
락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인근
의 식당에 의뢰하여 도시락을 준비하여

학생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학생들 모르게 전달하는 방법을 선택했
다. 이 일을 위하여 생활지도처장이 모
든 활동을 총괄하고 전도와 신학의 학
생 및 교사수 구성된 3개팀이 힘을 모으
고 있다. 중등3부에서는 이 제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의논했다. 우선 고정 후원
자를 모집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교사, 학
생, 부모 중 모든
사람이 다 후원자
가 되어 주기를 바
라는데 후원인들
은 각자 형편대로
후원금을 해 주면
된다. 그리고 일일차집과
바자회도 실시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웃사랑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
러나 용기있게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
들이 있기에 세상은 아름답다. 결식학
생들을 돕는 동시에 전도가 될 수 있는
중등3부의 이웃사랑에 따뜻한 박수를
보낸다. (정연희)



삶 가운데 작은 이야기

♡ 집 앞의 작은 교회에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다. 주
은 저를 새벽은 차기도 하다. 아무렇게나 신발을 벗어놓고
기도를 했다. 마루바닥이 차가웠지만 하나님께 향한 우리
의 뜨거운 기도가 열매를 주었다. 열심히 눈물, 콧물
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왔다. 신발을 신으며 마음의 평안
함을 느꼈다. 어,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분명 나는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들어왔는데 ... 모든 신발이 신기
편하도록 차가워져 있을 위에 놓여 있었다. 다음날도 그 다
음날도 이리저리 훑어본 신발들은 기도만 하고 나오면
신기(?)하게도 정열이 되어 있었다. 작은 섬김이었던 기쁜
이웃! 한국 사람들처럼 사랑을 정리하는 건 내 몫이 된
것이다.

♡ 며칠전, 전자우편(e-mail)을 받았다. "오늘, 출장을 가
려고 고속터미널에 갔어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헌혈을 했
어요. 청년부 주부에 광고가 났던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요.
헌혈증이 필요하다는 그 아이에게 주려고 아무런 헌혈증
을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
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부끄러웠다. 난 몇몇째 계속 지켜 있던
그 광고를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노병들도 함께 떠난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김 소 형 (고등부 2학년)

작년에는 전도부에서 두 번의 노병전도가 있었다.

한번은 정신이고 앞이었다. 나예겐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번째 전도였고 2·3학년 선배들도 그렇다 할 경험 없이 나갔다. 비록 우리가 올동과 찬양을 수십번 연습했다라도 막상 세상이란 전쟁터에 뛰어들고 나니 여기저기서 사탄의 방해가 우리를 혼돈에 놓으려고 했다. 종합운동장의 합성소리와 주변 상인들의 함의, 그리고 연습생 느끼지 못했던 주위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우린 기뻐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듯

찬양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린 그들이

우리의 내면적인 참모

습을 통해 은혜 받고 주님을 사모하길 원했다. 우린세 노병전도는 서울역에서였다. 우선 교회에서 모였는데 비가 내렸다. 그때도 우리는 낙심했다. 하지만 우리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주님께 올렸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지 약 두 시간 후 비는 그치고 밝은 해가 우리를 비쳤다. 정말 그 광경은 우리가 전도를 허락하심을 확신하게 했다. 모두 뿔 뿔 이기겠고 서울역으로 출발했다. 총인원 10명 일기는 기타 2개짜, 마미나 2개, 앰프 같은 것들은 짐차까지 않은 상태였다. 우린 역장의 방해를 받았다. 하지만 계속했다. 그리고 우린 한 아저씨를 만났

수 있었다. 우린 모두 그분께 주님을 전했고 그분은 만

남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다. 그 후 우린 역장아저씨에게 쫓겼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주님께 되돌려드린 것만이 우리 마음 속에 기쁨으로 가득차 있었다.

지난날을 정리하고 보니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다. 외적으로 거의 모든 준비가 완벽해 보였던 첫번째 노병전도보다는 적은 인원인 몇 안 되는 악기로 나갔던 두번째 노병전도가 더 은혜로웠다.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준비를 한다 해도

그것은 기도에 앞에선 내용 없는 겉껍데기일 뿐이었다. 물론 외형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있으면 좋은 것이지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기도만이 노병전도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전도 당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건간에 온전히 주님께 매달리자.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을 밀쳐 주시고 우리를 기도로 세상에 승리하게 해 주신다.

이번 4월 24일에 99년 처음으로 노병전도를 나간다. 역시 경험 많은 우린 2개짜로 불완전한 2학년이다. 하지만 이번 노병전도엔 자신이 있다.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우린 이번 노병 전도를 주님과 함께 기도로 무장할 것이다. 이번 혼돈되지 않을 것이다. 4월 24일에 우리 전도부는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다.

나 하기 싫은데 ...

김 민 (대학부 6학년)

나는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군복무를 했다. 행정병으로 근무하면 간부들을 많이 대하게 되는데 같이 일하면서 나를 무지하게 괴롭혔던 한 사람이 기억난다. 여러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나를 항상 다그치기만 했던 사람. 폭언과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말도, 모욕과 때로는 주먹, 그리고 그를 향한 건달 습도는 분노와 미움.

하사리에 있으면서 군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고 분노를 품게 했던 그 시간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슬피 나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용서하라, 사랑하라'였지만 나의 대답은 '어떻게요? 전 못해요' 이었다.

계속되는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마음가는 사람만 사랑하고 바라는 것들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피곤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없이 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읽고 기도하고 편하게되고 관심 있는 것만 하고 내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연다면 얼마나 괜찮을까? 하지만 내가 게으르고 교만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기 싫은 것들, 어려운 것들만을 요구하신다.

오늘도 내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를 앞에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놓고 똑같은 싸움에 일어난다. 때면 내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 마땅히 그래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앞면으로 계속되는 싸움. 못할 것 같아도 아니 못하니가 더욱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의 마음이 그것들을 향해 열리기를 해달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기어 속이고 그리고 현재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와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상처는 아물고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분노는 사그라드는 그 기적의 순간을 위해 기도해 본다.



그것은 기도에 앞에선 내용 없는 겉껍데기일 뿐이었다. 물론 외형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있으면 좋은 것이지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기도만이 노병전도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전도 당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건간에 온전히 주님께 매달리자.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을 밀쳐 주시고 우리를 기도로 세상에 승리하게 해 주신다.

이번 4월 24일에 99년 처음으로 노병전도를 나간다. 역시 경험 많은 우린 2개짜로 불완전한 2학년이다. 하지만 이번 노병전도엔 자신이 있다.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우린 이번 노병 전도를 주님과 함께 기도로 무장할 것이다. 이번 혼돈되지 않을 것이다. 4월 24일에 우리 전도부는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다.



고등부에서는 4월 25일에 99년도 전반기 예수초청 큰잔치를 실시한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젊은이' 비전 7000'을 달성하기 위해 1,000명 초창을 목표하고 준비중에 있다. 4월 4일까지 태신자 931명을 작성하였으며, 362명이 참여했다. 태신자를 작성한 이유는 담임교사와 작정자가 중보기도하기 위해서이다. 매주 월 분반 중부대 합성 중보기도와 매일 밤 10-11시 사이에 각자 처소에서 중보기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도 중에 전도하여 얻은 결실의 소식이 속속 전해 오고 있다.

중창 퍼스티발을 마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은 찬양제

장 성 호 (고등부 학생회장)



지난 4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갈릴릴홀에서 고등부 중창페스티벌이 있었다. 1부 개회예배, 2부 중창페스티벌, 3부 다같이 떡배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요즈음 촉탁회와 어지러운 문화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생활에까지 깊게 스며들고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여러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서 는 도저히 생각할 났 수 없는 일인 줄 알자 하나님께 감사하 드린다.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귀하게 인식되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잘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함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소서. 할렘루!

가장 큰 죄

박 교 상 (대학부 3학년)

언제부터인가 나는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는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를 맡아 아랫노라고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고는 내 정발 알 수 없었다는 마음이 일었고, 그는 그 기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얼마 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동시에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셨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손을 대기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정리하는 일에 익숙한 아이였다. 내가 지지는 잘못들을 싫어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나 자신을 더 미워하기 일쑤였다. 그러는 중에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고, 자연적으로 자신감이 사라져 갔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걸 다르게 돌릴 만 한 일 따위는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로이 말씀을 알아가고, 사람들과 나뉘며 자신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나에게 인식시킨 것은 한 사람과의 만남이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 자신을 또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내 그렇게 못했던 것이 아닌가? '사랑'이라는 것이 나에게 하나나 되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었던 스스로를 보며 사랑을 호러로 꾸미려하는 모습들도 있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포기하기보다는 보류의 형식으로 남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정말 아파하셨다. '너 이런단다'라 하시며 사랑이라는 것을 따로 봐주셨던 것이다.

그런 사랑을 내 얼마 전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그렇게 값진 피를 흘려가며 너를 구원했던건 어떻게 그 비싼 피를 써주려 또 만들어버리는 나? 내가 나의 피를 이미 다 사했었는데 왜 그 누구 속에도 감하지 너 자신을 정리하느냐? 내 결국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막으셨다. 난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흘리신 피. 그것은 어떤 면에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고귀하며, 값진 것이인데 내가 그것을 받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고, 흰 눈보다 더 희게 되었는데 난 나 자신을 정리함으로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어버렸다. 어찌면 이것이 가장 큰 죄인지도 모를 일일텐데.

- 20대 중반에 청각장애인이 된 배경과 그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박인기 강도사: 일단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산대 체육교육학과 3학년 재학 중 유도 수업시간에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병원에서 청진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약물을 쓰지 않았기 하는 정도로 추측할 뿐입니다. 청진기는 일단 영어에 걸어서 서서히 마비되어 갔습니다. 피아노의 높은 음부터 안들리기 시작해서 점차 낮은 음까지 못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병원을 그만두고 심하게 방황했지요. 후에에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입원대 철학과 2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제가 본래 성격은 좀 밝은 편이라서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렸지만, 일단 들리는 게 없으니가 책 보는 일에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참고로, 그는 청각장애가 가운데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열심히 다녔다).

- 청각장애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 않았습니까?

박인기 강도사: 본래 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장로님이시고, 제 큰형님은 목사이고 작은형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생활은 제 생활의 거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가 그것은 절대적이 아니라 불확실했습니다. 일단 안들리게 되자 신앙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많이 방황했지요.

-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셨나요?

박인기 강도사: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까. 1983년도에 결혼했는데, 내내는 제가 주님께 온전히 바친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저를 격려했습니다.

- 본격적으로 장애인 사역을 하시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으신가요?

박인기 강도사: 일단은 저 자신이 장애인이나 장애인스럽게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아내의 권고로 신학교에 진학하면서 이 일을 평

박인기 강도사 인터뷰 20년의 정적을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님



박인기 강도사(에바다부 지도)는 청각장애인이다. 그의 귀는 20여년 전에 닫혔다. 20대 중반 피끓는 젊음의 한가운데서 세상의 소리를 잃은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 하나님은 그의 영의 귀를 끊임없이 두드리셨다. 그리고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며 전하는 길로 그를 인도하셨다.

생의 사명으로 더 확실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사역하면서 어려운 일, 또 보람있는 일이 많았습니까?

박인기 강도사: 일단 어려운 일이라면 교역자로 섬기면서 다른 교역자들과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적절히 알아서 하지 못하는 것이 늘 좌절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늘 미안

할 뿐입니다. 물론 에바다부의 여러 선생님들과 특히 부장 강도님께서 깊이 헌신되어 있으셔서 제 개인적으로 보나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보람있는 일이라야 수도 있는 것이 보람있는 것이고, 또 청각장애 성도들이 우리 모두의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보람이지요. 한편은 정말 거지나 다름없었던 한 여자 분과 그 아들이 에바다부의 구역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제는 완전히 자립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매우 성숙한 신앙으로 자란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2백만원을 깎아 주었는데, 그 중 백만원을 건국은행으로 현금할 정도로 순수하고 열심있는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 앞으로 개인적인 계획이나 청각장애인 사역과 관련해 해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기 강도사: 우리나라에 청각장애인이 30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 그리스도인은 약 1만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영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현상을 이보다 더욱 심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내 장애인사역을 위해서 꾸준히 협조도, 장기적으로는 문서선교하고 청각장애인선교사 파송, 단기선교 등을 통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청각장애인들을 선교하는 일에도 우리 교회와 협조해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은 어느 나라나 끼리끼리 연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든지 계획한 잘 세운다면 성령님께서 큰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건전한 한 영혼과 장애인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한 영혼이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는 일단 정상인들이 장애인들을 볼 때, 자기의 건강에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장애인의 장애 자체만을 보고 돌고자 하는 마음을 갖되 그가 가진 장애로 인해서 그의 전 존재가 마치 열등한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고맙습니다.

북지인 이야기

장애인,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출현율(2.35%)은 영국(1.4%), 미국(1.4%), 네덜란드(0.9%), 덴마크(0.6%) 등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는 장애인으로 규정되는 범주가 외국에 비해 매우 협소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각종 노인성 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계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적 스포츠를 즐기게 되면서 산업 재해, 교통 사고 등 각종 사고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대형화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손상이 심해지고 있어 장애인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체 장애의 96%, 시각 장애의 89%, 청각 장애의 86%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체 장애의 경우 뇌졸중 등 각종 질환을 비롯하여 교통 사고 (11.4%), 산업 재해(8%), 기타 사고 및 전상(20%) 등에 의해 발생한다.

○ 장애인 범주의 확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파견되어 따라 2000년부터는 지체·시각·청각·언어 장애, 정신지체 영역 외에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 중증 신경·심장 질환자들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3단계에 걸

쳐 장애 범주를 확대할 예정이며, 1단계로는 만성 신경·심장 질환자와 정신분열증 등 만성 중증 정신질환 및 자폐증을 대상 질환으로 선정했다. 2단계로는 간헐적 만성 알콜·약물 중독, 기질성 뇌졸중군 및 발달 장애가 포함되며, 3단계에는 안면성 기형, 지체, 뇌노기계 및 피부 질환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의 문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타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교통 사고, 산업 재해 등의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의 문제가 어느 순간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의 문제로 등장하게 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장애인 이 더 이상 우리의 동종과 연인이 필요없는 대상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이웃으로서, 사회 전반적인 관심 속에서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된다. (한정혜)

▷ 체육수업 장면



서로 사랑해요

정예(자사본부 교사)

사랑부는 교회 설립 35주년을 맞이하여 1988년 9월 10일에 정신지체아들을 위하여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준히 섬겨오고 있다. 그동안 내내적인 문제들로 다소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사랑부 교사들은 흔들리지 않고 학생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지사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입각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가진 교사들이 이 해가 느린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하여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교육하기 위해 힘

리고 소리치며 울면서 마당 안타까워 한다. 그런 아이들이 사랑부에 출석하여 남을 괴롭혔던 아이도, 혐없이 당한 아이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서 매우 달라져 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렸는지 모른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학생들에게 실질조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다. 자신들이 남에게 실질조를 드리고 싶다면 실질조 현금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천원이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다. 하지만 나중에 가지고 온 봉급 내역서를 보았을 때 정말 마음속으로 울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내역서는 1, 2원을 합쳐서 3천2

천원이라는 액수가 적혀 있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헌신된 과부가 생각났다.

일년에 한 번뿐인 장애인주일에만 이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이들은 사랑에 메말라 죽을 것이다. 장애인주일을 맞아 장애인들을 살펴보는 인내적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대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깨어나 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

“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된
내 형제 자매라는 의식 가지고
장애자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깨어나 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

“헬로우”, “땡큐” 이래서 할머니를 움직이는 예수사랑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손길”



17교구의 이태순 할
머니는 주어진 한
정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
신다. 올해로 83세의 이
할머니는 이제 나이 들고
몸에 기운이 없어 특별한
활동은 못하신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고
가며 만나는 사람들을 그
냥 지나치지 않는다.

할머니는 그 나이 도래
의 분별보다는 외국 사람
들을 만날 기회가 많으시
다. 외국에 사는 딸을 맞으러 혹은 배웅하러 이따금씩
공항에 갈 기회가 있고, 또 사시는 곳이 성당인지라 디
옥 그렇다. 공항에서 만나는 외국인들에게 전도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할머니가 한글로 된 전도지보다는 주
간출판 영자판(Biweekly)으로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라는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공항에 갈 때
면 주간출판 영자판을 가지고 가서 외국인들에게 나눠
주게 되었다. 처음에는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줄
는지 몰라 약간은 걱정이 되기도 했으나 주간출판 영
자판을 받아왔다는 좋아하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자신
감을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 성
당 모란시장 부근이어서 인근의 공단에 취업하고 있는

이 약간은 무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할머니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
다. “선교사들이 멀리 외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도 하는데, 우리 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 미묘한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의 사명을 알고 있다. 뿌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요 기둥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을 각자에 맞는 전도법 한가지씩 개발하는 것은
어떨지... (이종배)

홍·현·개·시·관

다양성이 이루는 조화

들녘에 나가 보라. 이쯤 물을 수많은 꽃들
이 서로 어우러져 몸을 기대고 입을 부비며
소곤대고 있다. 키가 크고 작은 꽃, 잎이 소
복하고 너풀너풀한 꽃, 붉고 노란 꽃들이 또
어린 것은 어린 대로 성숙한 것은 성숙한 대
로 어울려 신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만약
은 들녘이 한 가지의 꽃으로만 덮여 있다면
여러 꽃들의 어우러진 오묘함만 훨씬 못하
리라.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다양한 사
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이다.
원꽃이 모여서 꽃더리 “너는 노란색이냐 꽃
이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너는
나처럼 믿지 않으니가 네처럼 믿음이 없어”
라는 말을 하기야 한다. 나의 것들을 남에게
무자비하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독특한 자기의 빛깔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외
모와 기질을 주셨다. 각각 다른 모습의 들꽃
이 모여서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도 각각 다
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이루었기에 아
름다다. 모든 성도는 절대적으로 소중한
대. 방식과 다르다고 믿음이 없다고 단정하
는 영적 편견에서 벗어나라.

지체들 소식

유아부 지난 주엔 교사기도회

유아부 교사들은 지난주(4월 11일)에
기도회를 가졌다. 4월 25일 새친구 초청
잔치를 앞에 두고 한 반에서 적어도 2명
이상을 전도할 것을 목표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가꾸어 나갈 어린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잘 자라도록, 선생님들이 나
태배지지 않도록, 기도의 무릎이 강해
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미순 통
신원)

초등부 합동예배

지난 주엔 초등부 학생들의 1학
기 학습 평가가 있었다. 3개월 동안 배
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
는 시간이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시험이
라고 생각해서인지 긴장하고 초조한 모
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미숙 통신원)

소년부 새친구 초청잔치

두달이 동안 기도로, 전도로, 대신자
정적으로, 전파심방으로, 홍보로 준비
되어왔던 새친구 초청잔치가 다음주(4월
25일) 오후 10시 30분)에 다가왔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로서 믿음과 기
도로 준비하여 담대히 씨를 뿌리러 나
간다는 사명을 비추는 두도 있다. 아차
기 뿌린 씨를 자라게 해서 추수를 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마치
따가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기도하
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새 친구 초청잔
치를 기다릴 것이다. (조동환 신도 5, 6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적극적인 동
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영준 통
신원)

중등1부 어려버린 영혼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연서

4월 25일 총동원 전도주일을 앞두고
지난 주 예배 후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
속으로 작성한 전도대상자들에게 연서
를 발송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예배를
듣고 교회를 초청하는 귀한 시간이었
다. 이리하면 준비과정 속에서 우리 친
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매일 그분의 사랑을 전
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바란다.
(김범진 통신원)

중등2부 ‘나도 선교사’

오정희 선교사는 중등2부 전 교사
대상으로 ‘나도 선교사’라는 제목의 특
강을 하였다. 3년 6개월 동안 선교지역
파리파에서 전개한 사역 과정들을 진
솔하게 고백하였다. 오 선교사는 “내가
향상 나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용
성을 듣고 더욱 더 선교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고 저금에 도전해 선교의 비전
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교사들
은 오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
에 전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
고 사물을 적었다. (심순옥 통신원)

청년2부 회원들의 주소록 ‘빛과 소금’

청년2부에서는 지난 주 회원들의

주소록 ‘빛과 소금’을 예쁘게 만들어
회원들에게 나눠 주었다. 99년도 회원
300명을 목표로 시작한 청년2부는 그중
간 등록하고 소속된 회원이 250여명이
되니 이 수첩에는 이들 250명의 명단과
주소가 실려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
로를 더욱 알아갈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며, 친교와 교제를 더
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매
개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라는
장로님이나 모든 청년2부 회원들의 기
대와 바램 속에서 만들어졌다. (백명자 통
신원)

3교구 믿음으로 승리하자

4월 9일 기도원에서 영성훈련을 가
졌다. 각 사람 심령에 성령충만을 부어
주신 귀한 시간이었다.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겠다는 고백의 시간이고 온전
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의 하루였다.
이종준 목사님의 설교말씀은 나만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사랑
을 실천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승리자
가 되자는 것이었고, 5대 목표를 놓고
뜨겁게 기도하며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174명의 교구식구들이
기도원에 올라와 교구 주제찬송 493장
을 눈동자로 불렀고 “믿음으로 승리하
자”를 크게 외치며 영적 대 각성을 하였
다. (백명자 통신원)

4교구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일년 전 교구에서 한 성도의 장례식
이 있었다. 교회에서는 활동을 안하여
서 열광도 모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구에서는 정성을 다하여서 그 영혼을

위하여 목이 될 때까지 찬양을 하였다.
문상객이 많아 장례식이 오래도록 진행
되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참석하였
던 친구 동업자는 믿는 자의 장례식을
보고는 평생 불신자였던 자신의 죽음을
부담하였다. 이분은 병상실방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자녀들도 전
도하였고 지난 부활주일 소원하였던 하나
님의 부름을 받았다. 평생 주님 없이 사
상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친구의 장례
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믿음의 선택을 한
승리자가 된 것이다. 죽음을 앞둔 갈보
리 십자가 위에서 인생의 실패자였던
강도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
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목에 찬양
을 하였다. (백명자 통신원)

7교구 영성훈련

은혜의 단비가 축복하 내리는 가운데
7교구 식구 180명이 충원기도원으로 향
했다. 교구 89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
과 부요’로 대주자로 김명태 목사님의
설교와 전도 특강이 있을 후 최귀환 집
사님의 실제 전도를 통한 강증과 사례
발표가 있었다. 전도에 대한 많은 도전
제를 받은 시간이었다. 성령충만한 전
체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7교
구 식구들의 모습이 기쁨으로 가득했
으며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내게도 주 소
사”라고 뜨겁게 외치는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해서 베타 가슴으로
주님을 뵈 수 있고 잘 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되었으니 한다. (7교구 통신원)

유병세